

법과 예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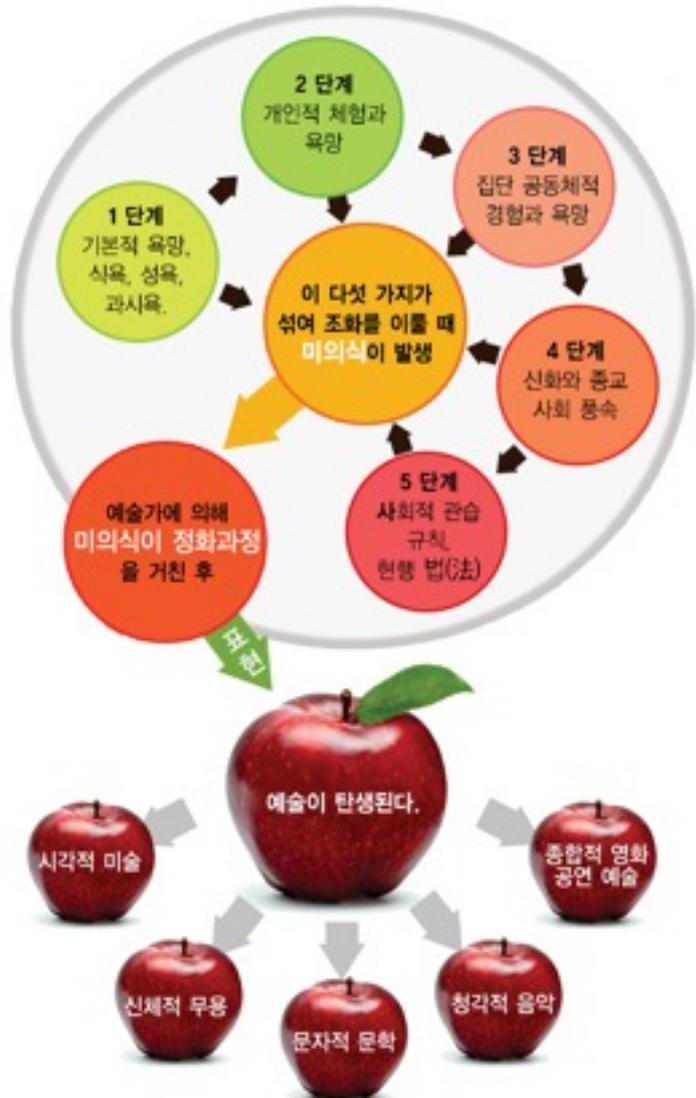
왜 법과 예술이냐고요? 인상파 화가중에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많고 이들의 활약은 눈부실 정도로 두드러집니다. 카유보트, 드가, 세잔느가 법학을 공부했고 이중 카유보트는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. 고갱도 역시 공증인으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.

또 모더니즘의 전환기에 새로운 길을 열은 위대한 두 예술가, 추상화를 창조한 칸딘스키는 법학박사로 법학정교수로 임명받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, 야수파를 창시한 마티스도 역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. 왜 갑자기 19세기부터 법학 전공자들이 위대한 미술가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?

이번 강좌는 법과 예술이 어떤 관계에 있고 이것이 서로 미치는 영향과 사례에 대한 주제로---

1부에선/

- 1) 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충돌(법적가치가 미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)
- 2) 그 충돌이 지니는 의미
- 3) 사회적 판단가치를 형성하는 것으로 예술적가치, 사회적 가치, 윤리적(도덕적) 가치, 규범적 가치와 법적가치의 위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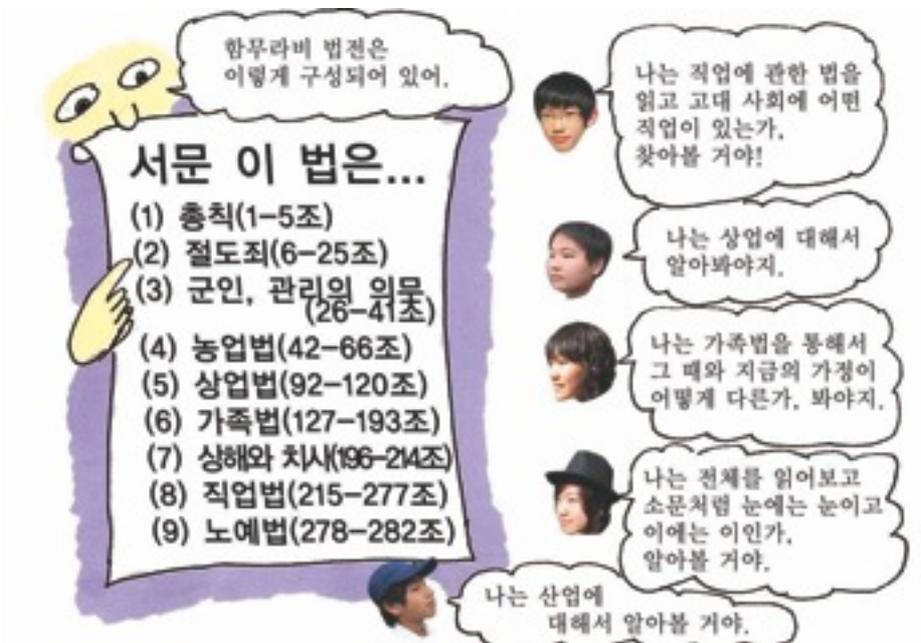
미의식이 예술로 탄생되는 과정.

2부에선/

- 4) 나는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우선할 것인가?
- 5) 가치를 만드는 삶
- 6) 미적가치는 욕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이 욕망의 표현이 예술로 나타난다.
이같은 까닭으로 법적 가치는 욕망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조율하는 가운데 충돌로 나타난다.

함무라비 법전 282조를 통해본 메소포타미아 사회

- (1) 총칙(1-5조)- 심판, 시죄법, 위증
- (2) 도둑죄(6-25조)-절도, 유괴, 강도, 화재터 도둑 (**범죄--20여조항**)
- (3) 군인, 관리의 의무 (26-41조) **공무원법에 해당하는 군인과 관리의 의무가 15개 조항**
- (4) 농업법(42-66조) --**농업24개 조항**
- (5) 상업법(92-120조)-대부, 이자, 행상인, 소매상인, 위탁품, 차입, 부채, 공탁과 분실 (**상업이--28개 조항**)
- (6) 가족법(127-193조)-가족, 결혼, 이혼, 첩의 지위, 처의 재산, 여승의 결혼, 지참금, 재산분(**가족법 66개조**)배, 상속, 노예와 자유인의 결혼및 재산의 분배, 양자
- (7) 상해와 상해 치사
- (8) 직업법-의사, 수의사, 이발사, 건축가, 조선업자, 가족의 대차와 보상, 노동자, 선박과 수레의 임대, 기타 노예에 관한 규정



저는 결혼에 대한 법에서 아주 앞서가는 현대식 결혼의 특성을 발견했어요.



앞서가는 면???

현대식 결혼!

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결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했어요. 128조에 보면 <아내를 얻고도 그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, 그녀는 아내가 아니다.>



와!
요즘 할리우드 대스타들이 결혼 할 때 계약서를 작성 한다던데,

정말 그러네!

이혼에 관한 조항(137조-143조)도 옛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었어요.

미성년자에겐 다 설명할 수 없어!

여자 인권 변호!

어떻게?

자기도 미성년자이면서.

원칙이 강한 법률
129 ~ 195
이혼에 관한 법률
137 ~ 143 조
속칭 (혼인외 여자관계)
144 ~ 149 조
재산 상속에 관한 법률
165 - 184 조
양자에 관한 법률
185 - 193 조
부모, 중속통행 ~ 195 조

그리고 또 하나, 가족 관계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. 전체 282조 중 68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가족 관계에 대한 법으로 24%가 넘었어요.

와! 전체의 1/4씩이나 차지하고 있다니, 정말 바빌론 사람들은 가족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구나!



와!

3,700년 전에

뿐만 아니라 <임산부를 다치게 한 죄> (209조-212조)를 만들어 산모를 보호했습니다.



와! 국가적으로 보호를 했네.

그건 209조! 211조.

유산물 시키면 벌금을 내야 했다.



다른 이상한
점이나 특색 있는 점을
발견한 사람은?



저는 바빌론 시대
의 직업을 법을
통해 알아보았어요.

고대 메소포타
미아의 직업?



그 때도
술집이 있었어요.
3,700 여 년 전에.....

정말 술집이?

믿어지지 않아요.



108조 < 술집 여 주인이 술값으로
곡물을 받지 않거나 지나칠 정도로
은을 요구하거나, 술의 되를 속이거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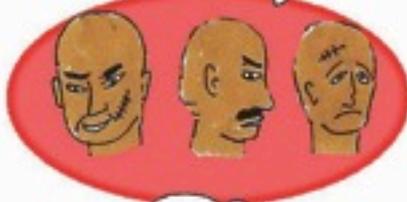
곡물의 되보다 작게 하고 그것이 밝혀지면
그녀를 물속에 빠트린다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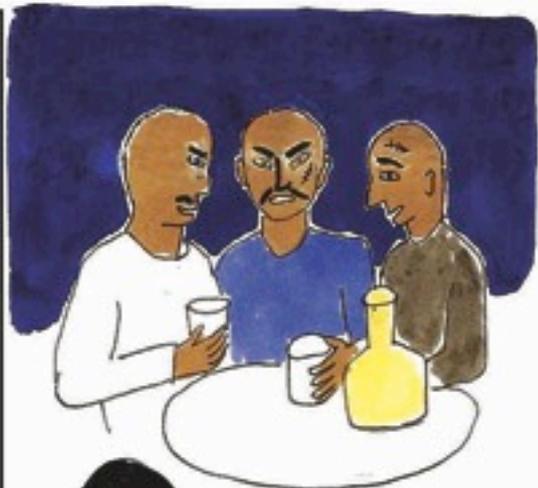
이런 법이 있었다는
것은 술집들이 많았다
는 것이고

또 술집의 주인이
양을 속이기도 하고
술값을 바가지
씩었다는 것이네.

그 것 뿐만이 아니에요. 조폭 같은
짱패, 불량배도 있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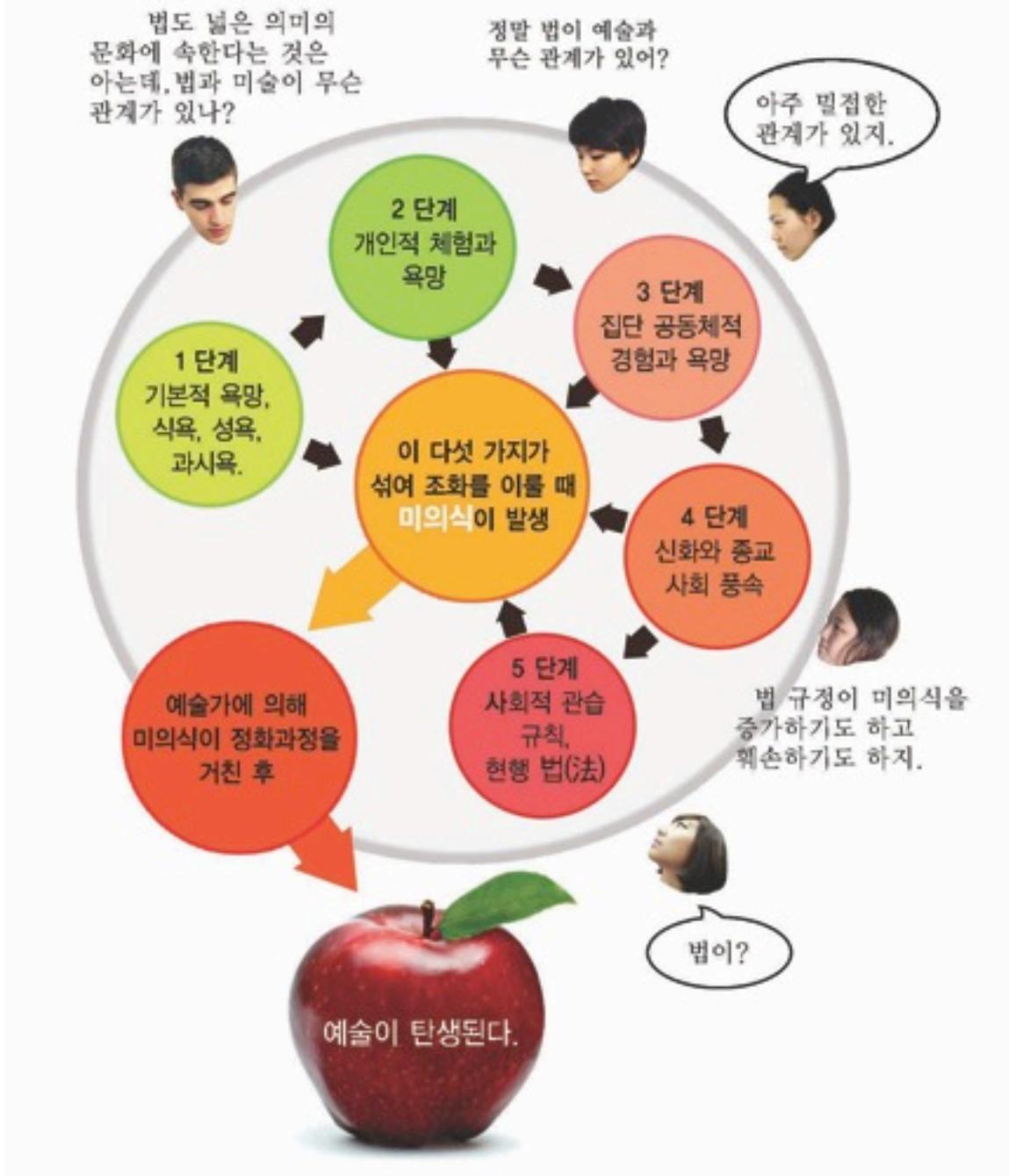


히,
불량배도!



얼른 신고
해야지.

법과 문화, 미술이 무슨 관계가 있지?



열린강좌를 주최하는 런던 시인의 문화학교 페이스북 (Rp' Institute) <https://www.facebook.com/RPIInstitute?ref=hl>

영국사랑의 다른 열린 강좌 들 듣기 http://04uk.com/new/bbs/board.php?bo_table=005&wr_id=146